



영그는 농심
싹트는 희망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못자리를 내는 농부들의
바쁜 손놀림이 올 가을
풍년 들녘을 예고한다.

서면 공수전리 들녘에서
도시로 나간 자식들이
모처럼 집안일을 도우며
풍년의 싹을 틔우고 있다.

사진 / 양양군청 기획감사실 전영진씨

군민의 공복으로 헌신

민선5기 제29대 정상철 군수 취임 ... 새로운 양양군정 약속



4월 28일자 취임사 전문

저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과분한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유구한 군정(郡政)을 마주하고 이 자리에 제29대 양양군수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취임소감에 앞서 이처럼 큰 영광을 주신 군민여러분께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이번 4. 27 재선거에서 양양군 발전의 원대한 꿈과 희망을 위해 노력하셨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 경쟁하였던 세분의 후보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선거에

임하셨던 진정성은 겸허한 마음으로 그 뜻을 널리 헤아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저는 이번 재선거가 매우 중요한 시기에 군민 여러분께 많은 부담과 수고로움을 안겼던 것을 상기하면서 그 사명과 책무가 한없이 무거움을 깊이 통감하고, 역대 그 어느 군수보다 더욱 충성스러운 군민의 공복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멀리 앞에는 우리 인근 자치단체들의 향해가 멀찌감치 앞서나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이제야 본격적인 향해의 출발선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더 많이 더 부지런히 더 쉽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먼저 선거과정에서 나타났던 갈등을 해소하고 군민 모두가 화합기치를 높이는 일에 다 함께 동참하여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동서·동해고속도로가 하루가 다르게 진척되고 있으며, 올 7월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유치된다면 이러한 기간 교통망들의 확충은 더욱 빠르고 완성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인프라의 확충은 수도권과 2시간 이내 생활권을 형성시키며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장을 제공함은 물론, 양양군 발전에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다시 출발하는 민선 5기는 이러한 전환점에서 '동해안 경제·교통·문화·관광의 중심도시'로서의 가치와 이상에 더욱 근접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만, 현재 이러한 대외적 배경 하에서 가장 시급하게 떠오른 우리군의 최대 현안과제는 오색로프웨이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그리고 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능전환 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공약에서 자처한 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 세가지 문제의 핵심에 정면으로 다가설 예정입니다.

설악권 관광의 교두보와 녹색성장의 표본이 될 오색로프웨이 설치사업은 반드시 내년내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치밀하게 추진시킬 예정이며,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는 올 7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연계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능전환문제는 우리군 인구증가와 일자리 창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이미 협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포스코 교육센터 유치를 비롯한 제2제3의 대안방안을 끊임없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째, 최우선적으로, 3+4(삼플러스사) 시너지 양양군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자치의 3요소인 주민, 자치권, 구역의 삼요소가 항상 제4의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창조형 군수로 거듭나겠습니다.

둘째, 그린(Green)-복지 양양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과감하게 재정의 물꼬를 돌려서라도 누수부분에 대한 지원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 녹색성장의 기초를 최대한 활용해 일방적으로 나눠지는 복지가 아닌 주고받는 복지로 전환시킬 예정입니다.

셋째, 오늘부터 저는 양양군 행정이 참 시민시원해졌다는 소리를 들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원행정을 통해서 되는 일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만들고 안 되는 일은 무엇으로 인해 안 되고 무엇이 법규에 어긋나는지 속 시원하게 미리 통보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투명하고, 또한 옳고 그름에 솔직할 줄 아는 책임 있는 행정으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군민의 참여와 소통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것입니다.

시원행정이 행해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보장되어야 할 것이 군민의 참여와 소통입니다. 다양한 공청회 의견수렴을 통해서 주민들이 마음껏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주민의 민의(民意)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다섯 번째로 양양군의 공정·투명 인사시스템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공정인사, 투명인사를 통해서 공직의 능동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직생활에서 몇 번 안되는 승진인사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실로 공직의 명예와 긍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의·존중하여 운영할 것을 준엄하게 약속드립니다. 이제 그간의 모든 양금과 갈등을 벗어 던지고 통합의 리더십 아래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뿌린 씨앗이 값진 열매를 맺어, 군민 모두가 함께 거둬갈 수 있는 공동의 양양군을 만들어나갑시다!

우리가 꿈꾸는 희망찬 미래, 밝은 미래 양양을 반드시 실현해 낼 수 있도록 오늘부터 저와 함께 힘차게 달려 나갑시다!

우리의 미래에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9대 양양군수 정상철

내년 국비 812억원 확보 총력

우리군 보고회 열고 대책 점검

우리군이 미진한 현안사업의 조기해결을 통한 전력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군은 5월 국비신청에 앞서 지난 4월 25일 '2012년도 국비확보대책 보고회'를 열고 10억원 이상 중점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사업비 확보대책을 점검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비지원 신청은 총 180건에 올해보다 200억원이 늘어난 812억원이며, 반복사업을 제외한 10억 이상 사업은 41건에 325억원으로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뒀다.

특히 내년도에는 국고보조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액 급증으로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우선 국비를 확보하고 보자는 관행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군정에 꼭 필요한 핵심사업 위주의 국비를 확보해 군비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재정 운영에 내실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주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소도읍 육성사업 21억원 △강현하수종말처리장 설치 25억원, △목재문화체험장 및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조성 56억원,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 10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16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0억원, 손양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38억원 등이다.

신규사업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17억원 △양양종합운동장 건립 23억원 △남애하수종말처리장 설치 35억원 △하조대 기존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13억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5억원 등이다.

군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월 1회 이상 국·도비 확보 전략회의를 개최해 추진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개발, 정부예산 편성 전까지 중앙부처를 비롯해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 출향인사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670-2108

탄소포인트제 6월부터 시행

30kwh 절감하면 45,600원 혜택

우리군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탄소포인트제를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군은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범 군민적인 생활속 온실가스 줄이기를 실천하기 위해 각 가정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한다.

탄소포인트 시행대상은 가정부문 전기로 가입시점부터 과거 2년간 월 전기사용량 평균값에 대비, 절감분에 대해 1kwh당 42.4포인트를 부여하고 1포인트당 3원의 현금 인센티브를 매년 1회, 6월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월 30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탄소포인트제를 통해 매월 10%인 30kwh씩 줄일 경우 연간 1만5천200포인트가 발생해 4만5천600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신청은 5월말까지 군청 환경관리과에 서면 또는 탄소포인트 운영 프로그램(<http://cpoint.or.kr>)에 가입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올해 200세대 참여를 목표로 관내 여성단체회원과 공무원 등을 우선 가입하도록 홍보하고 점차 군민 전체로 참여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손양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본격 추진

손양면 밀양리 일원 배수관로 공사 추진

우리군이 광역상수도 미 급수 지역인 손양면 밀양리 일원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어촌지방상수도 배수관로 공사를 추진한다.

군은 남대천 1급수 상수원을 군 전역에 확대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강현면~현남면에 이르는 주 배수관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미 급수지역인 손양면 밀양리~상양혈리~상운리에 대한 배수관로 확장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 지역은 광역상수도 배수관로가 7번 국도를 우회하여 군도 5호선인 낙산~수산~여운포리로 매설됨에 따라 광역 상수도 급수구역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군은 7번국도변에 위치한 손양면 간리~여운포간 10.7km에 대해 지난 2009년부터 국비 70억4,600만원, 도비 5억4,600만원, 군비 16억9,100만원 등 총사업비 92억8,300만원을 투입해 손양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까지 전체사업 구간 중 손양면 간리~하왕도리~와리~밀양리 3.6km에 대한 배수관로 공사를 완료했으며, 올해에도 21억6,800만원을 들여 밀양리~상양혈리 0.9km, 상양혈리~상운리 1.3km, 상운리~동호교(군도 5호선) 0.9km 등 총 3.1km의 배수관로와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도로 적용허가 협의 등을 거쳐 이달

중에 일제히 발주해 10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내년도에는 46억을 투자해 배수관로 잔여구간인 상운리~여운포리 4km에 대한 본관 매설을 완료하고 각 가정까지 연결하는 급수공사를 연차적으로 실시해 하반기부터 부분적으로 통합 상수원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으로 지하수 및 마을 간이상수도에 의존하던 손양면 내륙지역에 깨끗하고 안정된 수돗물을 공급해 갈수기 시 물 부족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의 보건향상과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상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670-2521

드림스타트 사업 우수기관 선정

우리군, 46개 사업 맞춤형 복지서비스

우리군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인 드림스타트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이 지난 2009년부터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건강·보육·복지분야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이 보건복지부가 전국 100곳의 드림스타트센터를 대상으로 한 2010년도 사업평가에서 농산어촌 유

형의 26개 우수 기관에 뽑혔다.

군은 지난해 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총 46개 사업에 연인원 3만8,743명의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특히 간호사, 사회복지사 경력의 전담 수행인력 3명을 채용해 대상가구별 욕구조사를 토대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사업을 발굴 추진, 현장 밀착형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울

해도 국비 3억원을 투입해 신체 건강분야와 언어 인지발달분야, 정서 행동분야 등 3개 분야에서 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치과치료와 학습지 지원사업이 필요한 아동을 선정, 관련업체와 협약을 체결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사회복지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의 주민생활지원과 드림스타트담당 670-2810

마을휴양지 청소비 폐지한다

올 여름부터 시행...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로

우리군이 피서철이면 논란이 끊이지 않던 마을관리휴양지의 청소비 징수를 올해부터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

군은 그동안 마을관리 휴양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징수하던 청소비가 민원발생 소지를 제공하는데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청소비 징수를 폐지하는 대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적용을 권고하고 있어 청소비 징수 근거 규정인 '양양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다.

특히 마을관리휴양지는 공유재산대부, 하천 내 행위허가 등 개별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 절차 없이 지정관리 및 운영되

고, 시설 사용료도 관리규정을 무시한 채 지역여건에 따라 차등하게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는 등 그동안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가 폐지되면 산간계곡, 하천 등에서 마을단위의 유원지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의 마을관리휴양지 지정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도로·하천·임야 등에 대한 점유허가 및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대부료를 납부하고 허가목적 범위 내에서 시설사용료를 징수해 운영하게 된다.

또 입장료 등으로 징수하던 청소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쓰레기를 직접 배출하는 자에게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적용하게 된다.

군은 이와 관련, 공유재산 대부료 납부와 쓰레기 수거 등에 따른 비용부담과 관리비용이 가중돼 휴양지 운영을 포기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고, 마을관리휴양지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해 시설 사용료 징수 및 폐기물처리대책을 협의하는 한편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해 쾌적한 휴양지를 유지·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관내에는 서면 범부리, 공수전리, 영덕리, 서림리, 갈천리, 강현면 석교리 등 6개소가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2만5,000여 명의 피서객이 이곳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기획담당 670-2721

낙산사 종합주차장 변모

아스콘 덧씌워 관광객 편의 증진



우리군이 최근 시행하고 있는 낙산사 종합주차장 정비사업과 관련, 아스팔트 포장 완료되면서 봄철을 맞아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변모하고 있다.

군은 7번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는 낙산사 종합주차장이 수십년간 이용하면서 정비하지 않아 콘크리트포장 노면의 일부가 파손되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등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지는 지적에 따라 시설개선 사업에 나서고 있다.

최근 주차장의 아스콘 덧씌우기를 시작하면서 준비한 건어들 가게들의 이미지도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 관광

객들에게 신선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올해 사업비 5억원을 들여 기존 주차장의 아스콘 덧씌우기와 주변정비 사업을 통해 9,600㎡ 면적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66㎡ 규모의 화장실과 휴게시설 등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낙산사 종합주차장은 토지 소유주인 낙산사가 그동안 개인에게 임대해 유료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에 정비사업을 통해 무료로 운영하기로 하고 주변상가 활성화와 관광지 이미지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

도시민 유치지원 10대 핵심과제 선정

인구 3만 회복 프로젝트 추진

우리군이 인구 3만명 회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도시민유치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인구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 실과소 담당 급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고 도시민 유치를 위한 분야별 10대 핵심과제와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추진과제는 △도시민 유치센터 운영 △귀농 귀촌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건축허가 및 산지·농지전용허가 원스톱 행정지원 △전원마을 조성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 인프라 지원 △국공유지 대부 지원 △문화콘텐츠 지원 △귀농인 작목별 영농 컨설팅 지원 등이다.

주요내용은 귀농귀촌인과의 일원화된 상담창구를 개설해 원스톱 행정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빈집알선, 농가주택 신축에 따른 산지, 농지 전용허가 사전협의, 국·공유지 활용방안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영농

희망자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고소득 작목을 제시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시민들이 손쉽게 이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시어니 타운 등 5호 이상의 집단이주단지 조성 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활발한 도시민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된 정착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담당 670-2479



물치만세운동 민족정기 되살려

올해 3번째 재현행사...애국정신·자긍심 높여



3.1만세운동 92주년을 맞아 지난 4월14일 오전 양양 강현 물치에서 1919년 4월5일 강현면 물치장날에 분연히 일어났던 물치만세운동을 기념하는 재현행사가 열려 민족정기를 드높였다.

양양문화원(원장 양동창)이 주관하고 강릉보훈지청과 우리군이 후원한 제3회 물치만세운동 기념행사에는 이철수 강릉보훈지청장과 애국열사 유족, 고완주 군수 권한대행,

강현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당시 일제에 항거하며 만세운동에 동참했던 강현지역 주민들의 의기를 되새겼다.

물치만세운동 재현행사는 3.1운동 당시 강현면민들의 드높았던 애국열사활동을 기념해 지역주민과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애국정신을 드높이기 위해 올해 세 번째로 열렸으며, 이날 행사에는 극단 굴렁쇠의 물치만세운동 재연 연극 및 진혼무 공연과 독립선언문 낭독, 의사.열사의 활동내용 소개, 3.1절 노래 제창과 만세 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양동창 문화원장은 "90년전 이곳 강현면 물치리에서 물치 5일장을 기해 분연히 일어났던 많은 애국지사님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군민 모두가 화합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동참하는 원동력으로 삼자"고 강조했다.

투르 드 코리아 양양 레이스

구룡령 거쳐 도착...자전거 거점도시 위상승

국제적인 도로사이클 경주인 투르 드 코리아(Tour de Korea) 2011이 본격적인 레이스에 오른 가운데 지난 4월 22~23일 우리지역에서 펼쳐졌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22일 오전 10시 태백시 종합경기장에서 출발해 오후 2시경 해발 1,013m의 양양 구룡령 정상에 통과한 뒤 오후 2시50분경 양양군청 사거리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구간별로 기량을 겨뤘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2일 낮 12시부터 군청사거리에서 다양한 경품과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오후 1시부터는 우리군이 제3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과 연계한 거점지역행사를 개최하는 등 자전거 도시로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날 거점지역 행사에는 관내 자전거동호인 100여명이 20분간 자전거를 타고 시



내권을 퍼레이드하며 문화공연, 자전거타기 홍보동영상 상영, 우리군자전거연합회장의 자전거타기 실천 결의문 낭독, 투르 드 코리아 개인부분 시상식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렸다.

또 이근식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참석해 전국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기증한 자전거를 관내 다문화가정 30가구에 전달하며 녹색에너지 실천에 동참하도록 격려했다.

남대천 벚꽃 길 만끽

양양고 내 고장 체험탐방 실시



양양고(교장 김형식)가 학업에 지친 학생들의 심신단련을 위해 벚꽃이 만개한 지난 4월 16일 남대천 둔치에서 내 고장 체험탐방의 일환인 벚꽃길 걷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양양고생들과 학부모, 교사 등 100여명은 봄을 맞아 남대천 둔치에 만개한 벚꽃

길을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치우는 등 자연정화활동도 펼쳤다.

양양고는 매년 봄을 맞아 지역명소인 남대천 벚꽃길을 걸으며 학업에 지친 심신을 달래며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사진전문가 / 전영진의 우리고장 돋보기



제29대 정상철 군수 취임식

정상철 군수가 지난 28일 오후 2시 문화복지회관에서 제29대 양양군수 취임식을 갖고 취임했다. 정상철 군수는 "오늘의 영광을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명과 책무가 한없는 3요소의 주민, 자치권, 구역이 항상 제4의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창조적 제4의 가치인 군민 모두의 행복과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뜻과 소신을 확고하게 드러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군수는 이날 오전 10시

주민이 행복한 평생 학습도시 만든다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 제72강]

상상력에 코드를 쫓아라

최윤규 넥스트리인터넷(주) 대표

전 인간의 가장 큰 능력은 '아이디어'라고 정의하고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인 '상상력'과 '창의성'이 미래 핵심리더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상력과 창의성을 갖기 위해서 첫째, 고정관념을 깨고 거꾸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라

둘째, 변화의 중심에 서라 셋째,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넷째, 호기심을 자극하라 다섯째, 제3의 방법을 찾아라 여섯째, 미래의 핵심은 디자인과 창의성이 다 - 창의성은 가치 있는 일에, 이성적 판단을 근거로 사용해야 하며 생각보다 가까이 있음을 알자.

일곱째, 도전과 모험을 즐겨라라는 일곱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상상력은 한계에 다다랐다 또는 고정관념이 뿌리 깊어 더 이상 상상력, 창의력이 나오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아이들을 보십시오.

일례로, 2000년 즈음 아이러브 스쿨이라는

사이트가 한창 인기 있을 때 제 고향 고등학교 1년 선배는 싸이월드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빛이 16억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도 다른 무언가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개개인에게 미니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고 도토리를 팔자라고.

"이 무슨 엉뚱한 생각인가 도토리를 팔다니" 그 후 몇 년이 지나고 그 싸이월드란 사이트는 그야말로 대박이었죠 그때 저도 얼마라도 투자를 했다면 지금은 백억대의 자산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후회합니다. 이번엔 짧은 동영상 한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지역주민과 초청인사, 군청 직원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취임식에서 정 군수는 “이 무거움을 깊이 통감하고 역대 그 어느 군수보다 충성스러운 군민의 공복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정 군수는 군수로서 지방자...형 군수로 거듭나겠다며 우리군의 모든 현안 과제는 단기적으로는 그 목표의 달성에 주안점을 두겠지만, 이렇게 도달한 목표...별였다. 이와 함께 그린복지 양양군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군 행정이 참 시민원해겠다는 소리를 들도록 하겠으며 군민의 참...현산공원 충혼탑을 찾아 참배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으며 취임식 이후에는 지역의 기관단체를 방문했다.

미스터 빈이 추첨번호표를 들고 있는데 “616”이라고 쓰여있죠 곧 추첨번호가 발표됩니다. “919” 아쉬워하며 장난감기차 화물칸에 버리죠. 잠시 후 다른 지점에서 그 장난감 기차를 보았습니다. 616이 아닌 919라고 쓰여있죠. 잠시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창의력은 모두 소진 되었다 생각되면 여러분의 아이들에게라도 상상력과 창의력을 심어 주십시오. 특별히 교육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맘껏 본인이 하고 싶은걸 하게 내버려 두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웁니다만 쉽지 않죠 하지만 전 그렇게 했습니다. 학교가기 싫다고 하길래 그림 1년간 하고싶은걸 3달씩 해보라고 운동, 공부, 만화, 컴퓨터 무엇이든, 그랬더니 학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과하고 놀고싶다고 하면서요. 전 학원을 보내지 않습니다. 한 두달 다니곤 돈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성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사회는 상상력의 사회입니다.

리더의 핵심 능력은 상상력에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력을 위해서는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해야 합니다. 똑같은 정보를 대하면서 왜 나만 다른 것을 못 볼까요? 정보습득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입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개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컨버전스입니다. 컨버전스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나를 컨버전스 하는 것입니다. 나와 무엇을 합치면 무한한 무엇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그 무엇을 사명이라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나 + 사명 = 행복입니다.

사명을 찾으면 인생이 재미있어지고 창의력을 꺼내려 하지 않아도 창의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명을 찾기 위해서는 내 속에서 나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사명과 하나의 컨버전스 되어야 합니다.

사명을 찾아 무슨 일을 해도 신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향토사학자 이재풍의 우리고장 탐방

遊戲謠 (유희요)

정겨운 우리 놀이 노랫말을 소개합니다.



마-12. 풍물소리 (마당놀이 장면)

팽과리 “아주머이(아주머니) 아주머이
동네 아주머이
날 줌 보오
날 줌 보오
날 날 보오.”
날나리 “나는 몰라
나는 몰라.”
징 “주어라 주어
어서 어서
장구 “태앵 태앵
태앵 태 앵.”
북 “푹푹
푹푹 푹 푹.”

우리네 놀이 속에도 해학이 있었습니다. 풍물에 대한 특징 기능에 걸맞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즉 팽과리는 구성체와 선도적 역할 기능에서 활력과 기교 위치를 날나리(태평소)는 간드러진 멋스러움을 짙은 무게 있는 중후한 맛을, 장구는 강력한 힘을 솟게 함은 북은 우직하면서도 동잡 강화 의식에 충분하였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같은 소리와 가락이지만 생각에 따라 각 가지 느낌을 갖게 하였습니 다. 거짓 없는 생활상의 나열이라 하겠습니다. 그 함께 어울림의 즐거움 속에서도 터놓고 직설적 으로 하기 곤란한 것들을 슬쩍 돌려 비유적으로 알 듯 말 듯한 표현을 통해 나름대로 가슴마다 걸려 앉히게 하면서 서로가 웃게 하는 여유의 공간을 마련 하였다 하겠습니다.

* 지난 호마-11 중 '눈' 뒤의 '배뺏'은 삭제합니다.

제5회 양양읍민의 날 성황

읍 승격 32주년...지역화합 다져

제5회 양양읍민의 날 행사가 5월 1일 오전 10시 양양읍 승격 제32주년을 맞아 양양살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양양읍이장협의회와 양양읍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하고 양주회가 후원한 양양읍민의 날 행사에는 정상철 군수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1979년 5월1일 읍으로 승격한지 올해로 32주년을 맞는 양양읍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 행사는 그동안 기념식과 문화행사로 진행됐던 방식을 바꿔 기념식과 읍민체육대회로 진행됐으며, 1부 기념식에서는 양양읍의 미래 비전을 담은 영상물을 상영하고 읍 발전에 공로가 크고 모범이 되는 읍민 중 원대수씨가 노인복지증진 공로로 읍민대상을, 박효준씨가 지역축산업 발전유공으로 일하는 직장인상을, 조순자씨가 경로효친사상



고취로 효행부문상을 수상했다.

이어 오전 11시부터 열린 2부 읍민체육대회에서는 양양읍 24개리를 동서남북 4개팀으로 나눠 배구, 족구, 피구 등 체육대회를 열고 시상식과 경품 추첨으로 마무리했다.

▶문의 양양읍 총무담당 670-2611

출산장려 캠페인 벌여

우리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양순자)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출산장려 캠페인을 벌였다.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20여명은 지난 4월 4일 양양전통시장에서 출산장려를 통한 인구증대에 동참하자고 호소하며 홍보물을 배부했다. 또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증진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주민들의 관심을 독려했다.

자전거 인프라 대폭 강화

이용시설 및 노선 등 정비

우리군이 2010년도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실적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돼 받은 분권교부세를 투입, 기존의 자전거도로 중 폭이 좁거나 단절돼 자전거 이용에 불편한 구간에 대해서 정비와 함께 자전거교통 안전시설을 추가로 확충하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을 추진, 안전사고 예방과 자전거타기에 편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군은 분권교부세 6억6천만원을 투입해 3곳

의 자전거도로 3.55km구간에 대해 노선연장과 조명시설 설치 등 정비를 추진한다.

양양읍 연창리 남대천 야구장에서부터 양양교 북단까지 1.5km구간중 노폭이 좁아 자전거통행이 어려운 양양대교 하부 구간의 1.5m 폭 자전거도로를 2.5m로 확장하고 일부 위험한 구간은 돌망태와 데크로드 형식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낙산에어포트콘도텔에서 낙산해변 행정사실까지 0.7km구간은 기존 노폭 1.5m에서 2.5m로 폭을 확장하는 동시에 단절구간에 대해서는 연결공사를 실시한다.

▶문의 미래전략과 자전거정책담당 670-2266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 제73강 안내



- 일 시 : 2011. 5. 25(수) 15:00
- 장 소 :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2층 대공연장
- 강 사 : 신상훈(辛尙勳) 방송작가
- 강연주제 : 웃어라 동해야, 우리집도 웃어라, 웃음이 넘치는 가족 만들기

군정시책 제안공모

연중 접수...우수제안 군정 반영

우리군이 창의적이며 우수한 군정시책 제안을 공모한다.

군민 누구나가 참여해 일상생활이나 행정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행정능률 향상에 반영하도록 군정 제안을 연중 공모한다고 밝혔다.

제안과제는 군정발전 및 지역개발·보전방안, 불합리한 제도개선, 인구유입방안, 예산절감과 경영수익사업 제안, 군정운영 및 공직자와 주민의식개혁 등에 관한 아이디어 등이며, 우수한 아이디어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활용할 계획이다.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제안은

대상 200~300만원, 금상 100~200만원, 은상 50~100만원, 동상 30~5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지며 공무원인 경우 근무평가 가점부여 등 인사특전이 부여된다.

공모 제안은 제안서, 제안내용 설명서 등을 첨부해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올리거나 기획감사실, 읍면에 방문해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제안서 중 7월까지 접수된 제안서는 8월중 예비심사와 1.2차 양양군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에 시상할 예정이다. 8월 이후 접수된 제안서는 내년도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문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670-2101

농기계교육장 건강상담 '인기'

보건소, 농업인 종합서비스 제공

우리군이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장에서 건강관리 상담을 진행해 농업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끄는 등 농업인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호평을 받고 있다.

보건소는 지난 3월부터 시작한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장에서 영농에 지친 농업인들의 건강관리도 함께 체크하기 위해 혈압, 혈당 및 치매 등 건강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속초경찰서와 협력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대한 홍보, 주행형 농업기계의 후미에 야광반사지를 부착해 줌으로써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농업기계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지역 농업

인이 필요로 하는 종합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보건소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장과 함께 건강상담을 실시하면서 농업인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농업인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문의 기술지원과 인력육성담당 670-2337



산채작목 농가소득원

음나무·고사리 보급 확대 추진

우리군농업기술센터가 2002년부터 중점 추진해온 산채 전략작목 육성사업이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군이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채는 음나무(속칭 개두릅)와 고사리로서 산불로 인해 무단 입산이 금지되면서 야생 산채 채취량이 줄고, 웰빙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면서 소비량이 급증해 재배면적이 매년 10ha이상씩 증가해 올해까지 90ha에 이르고 있으며 2012년이면 100ha로 재배면적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음나무는 재식 5년후 1그루당 5,000원~10,000원의 소득을 올려 1,000㎡당 250만원, 고사리는 종근 식재 후 3년차 연간 수확이 1,000㎡당 생채로 400~500kg 생

산 300만원의 소득을 올려 올해에도 농가들로부터 종근 신청이 쇄도해 군은 지난 4월 8일 고사리 13,280kg과 음나무 11,690주를 지역내 50여농가에 배부했다.

이들 산채는 병해충이 거의 없고 농약이 필요 없어 친환경 재배가 쉽고 농촌 고령 일손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중 하나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히 산간지역에 자주 출몰하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수확물 피해가 거의 없어 농민들이 선호하는 작목이기도 하다.

특히 음나무는 2010년 서울 만두제조업체에 만두속 재료로 납품하면서 웰빙음식 재료로 호평을 받고 있다.

▶문의 기술지원과 원예경영담당 670-2467

“후배들 마음 놓고 공부하길”

양양고 14회 이두순 공간찬넬(주) 회장 도서관 기증

모교에 15억원 기부

우리지역 출신의 한 사업가가 거금을 들여 고향의 인재육성을 위한 도서관을 기증해 화제다.

그 주인공은 서울에서 공간찬넬(주)를 운영하고 있는 이두순 회장(61, 사진 뒷줄 왼쪽 다섯번째).

이 회장은 모교인 양양중고 후배들을 위해 최근 15억원을 쾌척, 최신식 도서관을 건립해 기증하기로 하고, 지난 2일 오전 10시 교정에서 김형식 교장과 이상집 교육장, 전세남 양양중고총동문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증식을 가졌다. 지역사회는 이처럼 후배들의 교육을 위해 아낌없이 베푸는 이 회장의 모교사랑에 대한 열정을 높이 사며 칭송이 자자하다.

특히 근래 들어 양양중고생들의 학력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데다 인재육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회장의 도서관 기증은 지역사회 기부문화에도 큰 획을 긋고 있다는 평가다.

이 회장의 모교 도서관 기증은 어릴 적 가난하게 자라면서 배움에 대한 갈증이 남달랐던 성장 배경이 있다.

현재 서울에서 진열대 제조 전문업체인 공간찬넬(주)를 운영하고 있는 그는 손양면 금강리가 고향으로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양양중고(고 14회)를 마치고 한국해양대학에 진학한 뒤 자수성가하기에 이른다.

지난해 창업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경영성과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마음먹었던 이 회장은



학창시절 배움에 대한 열정을 떠올리며 모교 후배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을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재경양양중고동문회장을 지낸 그는 지역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양양중고 도서관이 후배들에게 ‘배움의 웅덩이’가 되도록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일 기공식을 가진 양양중고 도서관은 현재 관악부를 건물을 철거한 뒤 지상 3층, 810.27㎡의 현대식 건물로 건립되며 1층은 종합자료실과 자율학습센터, 2층은 북 카페형식의 복합문화센터, 3층은 도서관 프로그램과 교육정보센터 조성될 예정이다.

이두순 회장은 “언어가 모천인 남대천을 오르듯 고향을 생각하면 언제나 푸근하고 마음이 설렌다”며 “고향 후배들이 가장 좋은 시설인 도서관에서 학창시절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뒷받침한 것뿐인데 속스럽다”고 겸손해했다.

강현 중복사거리 공사 완료

구조개선 불편 해소 및 교통편의 기대

우리군이 강현면 중복리에서 설악산으로 연결되는 농어촌도로 구간 중 구조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중복사거리에 대한 구조개선 사업을 완공, 교통편의가 기대된다.

군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총사업비 10억9,000만원을 들여 중복사거리 오르막 구간 550m에 대해 도로 폭을 8~13m로 확장하고 경사도를 낮추는 도로선형개선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 2억원을 들여 법면보호공사를 마무리해 모든 공사를 완료했다.

중복사거리는 회룡리에서 설악산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상북리에서 물지간 농어촌도로가 접하는 교차로로, 차량과 농기계의 운행이 잦고 설악산 방향



의 도로가 급경사에다 선형이 곡선을 이루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개선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008년부터 이 구간의 구조개선 공사를 시행, 이달 모두 완료한 가운데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개선과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기대되고 있다.

바편 지번 인터넷 검색 구축

우리군이 행정구역 변경 및 각종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지번이 바뀐 토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종전 지번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바편 지번 인터넷 검색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군은 현재 보관중인 행정구역 변경조서 및 각종 개발사업 조서 자료를 근거로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10,990건의 바편 지번에 대한 변경 전·후 토지소재 및 지번, 토지구분, 변동일자, 사업명, 변경사유 등 6개 항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4월부터 7월까지 구축하고 8월부터 서비스가 시행되도록 할 계획

이다.

토지개발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종전 지번이 없어지고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경우 종전 지번을 알 수 없어 군청에 방문하여 구 토지대장이나 환지설명서 등 각종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토지행정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될 바편 지번찾기 서비스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접속하여 ‘바편 지번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민원봉사과 지적정보담당 670-2177

시니어낙원 조성사업 본격화

기반시설 완료...도시민 유입 기대

손양 송전·가평지구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이 기반시설공사를 완공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들어간다.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은 손양면 가평리 176번지 일원 19,509㎡의 부지에 19동의 전원휴양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도시 은퇴자들의 인구유입과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의 일부를 군에서 지원하고 민간사업자(입주자 대표)가 기반시설과 주택을 건축하는 민간사업자 주도형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군은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등 총사업비 8,000만원을 들여 송전~가평리간 마을안길에서 주택단지 내로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했으며 사업자 측은 부지조성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했다.

민간사업자(입주자 대표단)에서는 부지조성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건축물 착공신고 5월부터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입주예정자의 취향에 따라 건축 연면적 90㎡~152㎡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경관형 주택을 신축해 내년 말까지 전원입주 한다는 방침이다.

입주예정자는 서울, 경기지역 도시민이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대부분으로 귀농 및



귀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주변에 수산항 및 낙산도립공원 등 관광시설을 갖추고 있어 전원주택지로 각광 받고 있는 곳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주변지역의 개발에도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군은 도시민 유치를 위해 빈집알선과 귀농귀촌 이주 정착 성공지원을 위한 전문가 특강, 현장체험, 멘토선정 등의 귀농귀촌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인구유입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문의 민원봉사과 건축담당 670-2165

산나물·산약초 무단 채취 단속

6월24일까지 기동반 운영

우리군이 봄철을 맞아 산나물과 산약초의 무단 채취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최근 산나물, 산약초를 무단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산림내 귀중한 자원보호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6월24일까지 두 달간을 '봄철 산나물·산약초 무단 채취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산림사법경찰관이 포함된 산림수사기동반을 편성해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산채, 약초, 녹비, 나무

열매, 버섯, 덩굴류 등 굴·채취행위를 비롯해 봄철을 맞아 산나물 산약초 채취 동호회를 구성해 무단으로 단체 입산해 굴채취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산림내 산나물·산약초 등 입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군은 산약초와 산채는 농산촌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이기에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나 벌채, 뽑아가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산림농지과 산림보호담당 670-2714

소상기 은어 불법어업 단속

5월31일까지 운영

우리군이 은어소상기를 맞아 오는 31일까지 불법어업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내수면의 은어 자원 보호를 위해 소상기인 5월 1일~31일까지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새벽·야간과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또 남대천 본류와 지류, 화상

천 등 우심지역에 대해 강원도와 합동으로 불법어업 단속반을 편성, 불법포획행위와 불법어구사용 등 내수면 어업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단속 기간 중 은어를 잡아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을 처하게 된다며 소상기 은어 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포획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해양수산과 자원개발담당 670-2744

주말 양양전통시장 운영 검토

우리군이 설악권 최대 규모인 전통 5일장의 관광상품화를 통해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한 주말시장 운영을 검토한다.

군은 유통시장 개방과 대형마트 증가 등에 따라 지역 상거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전통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주말장터 운영방안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타당성 조사 및 활성화 전략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양양주말시장 운영을 위한 기본방향 및 운영전략, 상설시장 및 기존 5일장과 연계 설정, 지역축제와의 연계, 시설 및 환경개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지역특산물 유통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한다.

▶문의 경제도시과 경제진흥담당 670-2707

군은 오는 6월말까지 주말시장 운영을 위한 기본방향 및 운영전략을 수립하고 주변상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파급효과, 기존 5일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면밀히 분석해 주말 관광시장을 본격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4일과 9일에 열리는 5일장은 계절별로 다양한 농수특산물이 거래돼 수십년간 명맥을 이어오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특화시장으로, 옛 향수와 정서를 갈망하는 현대인의 취향과 맞물려 상인과 지역주민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시장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본격 운영

5월부터 진행...문화욕구 부응

우리군이 지역과 계층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문화욕구 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5월중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등 4개 분야별 공연단체를 선정해 지역주민, 학교, 병동, 사회복지시설 등 문화소외지역을 직접 방문해 다양한 공연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참여단체는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등 4개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강원도내 공연단체를 대상으로 5월9일까지 공모접수한 후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사업 수행능력 및 활동실적, 출연진의 예술적 역량, 스텝의 전문성 등을 심사해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공연을 수행할 공연단체를 선정하게 된다.

군은 지난 2004년부터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공연기회가 적은 오지마을 학교, 장애인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문화소외지역을 찾아 소규모 공연을 진행, 호응을 얻고 있다.

▶문의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670-272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내용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에 따른 벌점제도 등 신분적 불이익이 없고 강제징수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고의적·상습적으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에서는 2010.4.5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일부 개정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여 2011.07.06일부터 시행예정 이오니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번호판이 영치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

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 제출

1.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그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2.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 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문의 경제도시과 경제진흥담당 670-2707

국민권익위원회 추천상담센터 운영안내

□ 운영개요

○상담센터는 전직공무원인 명예민원상담관 2명이 1일 1명씩 교대로 상근하면서 민원처리 절차 등을 상담·안내하고

○15명의 인력 풀로 구성된 전문상담위원인 법무사(월, 수), 공인노무사(금)가 요일별로 1명이 오후(14:00~17:30)에 공시지가 분야, 등기·호적, 노무·산재 등 관련 무료상담 실시(방문 및 전화상담)

□ 상담일정

□ 위치 및 전화

구분	상담분야	상담위원	상담일	상담시간
전문 상담위원	법률 및 생활민원	법무사	월, 수	14:00~17:30
		공인노무사	금	
민원처리 절차안내 및 상담		명예상담관	월~금	09:00~18:00

- 위치 : 춘천시청(별관동 2층) 전화 : 033-250-4000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로 전환됩니다

- ▶ 2011년 3월부터 6월까지 도로명주소 고지문을 방문 또는 서면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 ▶ 도로명주소는 2011년 7월 29일자로 고시된 후 법정주소로 사용되며, 이후 각종 공부상주소(소재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도로명주소로 변경됩니다.
- ▶ 도로명주소는 고시한 후 법정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는 2011년 7월 29일자로 고시하여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도로명주소(도로명과 건물번호)는 이렇게 부여합니다.
 - 도로명은 해당 지역과 도로의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합니다.
 - 건물번호는 도로의 시점부터 종점까지 20m 간격으로 나누어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번호를 규칙적으로 부여합니다.
- ▶ 모든 공적장부의 주소도 도로명주소로 변경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의 주소는 신규재발급할 때 도로명주소로 표기하게 됩니다.
 - 주민등록증의 주소변경은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뒷면의 '주소변경'란에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기재하여 드립니다.
- ▶ 고지된 주소에 동일인의 주소나, 단체(사업자, 비법인 등)가 있는 경우, 개별고지를 생략하고 본고지서로 갈음합니다.
-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신청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 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며, 고지내용의 정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양양군청 민원봉사과 ☎ 033-670-2262, 2177, 2153
- ▶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uso.go.kr>)

2011 경제총조사 안내

- 통계청과 양양군에서는 2011. 5.23일부터 6.24일까지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제총조사를 실시합니다.
-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분포, 고용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정책, 기업경영 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지정통계(제10171호)입니다.
- 조사기간 중 통계청 및 양양군에서 채용한 조사원이 귀 사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체 현황, 사업실적 등에 대하여 조사할 예정이오니, 사업경영에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조사대상 :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모든 사업체(약 355만개)
 - 양양군 : 3,388개 사업체
 - 조사기간 : 2011. 5.23.~6.24.(인터넷조사 5.16. ~ 5.31.)
 - 조사방법 :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인터넷조사 병행)

▶ 문의처 : 통계청 경제총조사과 080콜센터 ☎ 080-200-2011
양양군청 기획감사실 ☎ 670-2214

소비자 물가동향

- 3월중 도내 물가동향
 - 전월비 0.8%상승(전국평균 0.5%상승) → 공업제품, 개인서비스 상승주도
 - 전년동월비 5.0%상승(전국평균 4.7%상승) →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개인서비스 상승주도

	주요 상승 품목(%)	주요 하락 품목(%)
농축수산물	꽃고추(35.2), 피망(18.0), 감자(13.7), 오이(12.5), 바나나(12.4), 무(10.7), 콩(6.4), 배추(6.4)	시금치(-36.8), 부추(-31.9), 양배추(-19.6), 미나리(-18.9), 생채(-14.7), 딸기(-14.2)
공업제품	교과서(고등학교):35.1, 사탕(13.8), 볼펜(8.4), 소시지(6.9), 등유(6.5), 경유(6.1)	마요네즈(-8.1), 칫솔(-6.0), 케첩(-5.5), 사진기(-4.5), 삼푸(-4.1), 가스렌지(-4.0)
서비스	치과진료비(0.8), 납입금(국공립대학교:0.7) 콜프장이용료(16.3), 김밥(8.9), 태권도학원비(4.9), 학교급식비(4.8), 구내식당식사비(4.4)	납입금(고등학교):-26.6, 전사관입장료(-8.3)콘도 미니엄이용료(-10.8), 국내항공료(-3.6), 단체여행비(국내):-1.1, 등심외식:-1.0

□ 4월중 중점관리품목

분야	중점관리품목(물가지수 2005=100)
농축수산물	상추, 마늘, 배추, 사과, 토마토, 참외, 콩나물, 닭고기, 조개
공업제품	스낵과자, 어묵, 간장, 두부, 참기름, 설탕, 맥주, 우유, 양말, 화장비누
의약품	감기약
개인서비스(외식)	학교급식비, 김밥, 짬뽕, 자장면, 불고기
개인서비스(비외식)	납입금(전문대학), 납입금(사립대학교), 보습학원비, 영화관람료, 미용료
공공서비스	외래진료비

* 통계청 발표 3월중 생활물가지수에서 전국평균보다 높고, 전국 시도 중 5순위 내에 있는 품목 선정

- 강원도에서는 자체적으로「강원물가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망을 통해 주간단위 지역별·품목별 가격동향 등 각종 물가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접속방법 : 인터넷 주소창에서「cpn.provin.gangwon.kr」입력
- 업소에서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요금인상 자제 및 요금 인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는 알뜰소비를 통한 물가안정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한 만큼 쌓이는 행복보너스, 근로장려금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최대 1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여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가구이어야 합니다.

1.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요건 :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 부양요건 : 18세(11년은 '92.12.01후 출생자)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 주택요건 :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소유(직전년도 6월1일 기준)
 - 재산요건 : 세대원의 주택 및 예금 등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직전년도 6월1일 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 및 지급

-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인터넷·전화·우편·방문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9월 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 등으로 지급해드립니다.
-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의 나의 예상 근로장려금 알아보기를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근로장려금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 전년도의 연간 근로소득(부부합산)의 크기에 따라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연간근로소득(부부합산)	근로장려금 지급액
0~800만원 미만	근로소득×15%
800~1,200만원 미만	120만원
1,200~1,700만원 미만	(1,700만원-근로소득)×24%

* 정확한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근로소득 구간별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 국제청세미래콜센터(126),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건강관리에 유익한 생활기상정보

봄철이지만 한낮의 기온은 20℃를 훌쩍 넘어 반팔을 입는 이들이 늘고 있고, 벌써 여름을 재촉하는 듯 수은주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 들녘에는 풀들이 돌아 오르며 싱그러움 풍경을 그려 내지만 우리의 몸은 때때로 식욕부진과 나른한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계절의 변화에 우리의 신체가 적응을 하기위해 격어야 할 시간이 필요한 탓이다. 이 환절기에 알아두면 건강관리에 유익한 생활기상정보를 살펴보자.

황사와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

봄은 꽃가루와 메마른 먼지가 날리기 일쑤다.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을 동반한 결막염 등 알레르기 환자에게 괴로운 시간인 것이다. 꽃가루와 흩날리는 바람이 많이 부는 때나 황사가 예보되었을 때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외출이 어쩔 수 없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자. 다음은 꽃가루 농도에 따른 알레르기 질환 발생가능 정도를 나타낸다.

식중독 지수

단계	주의사항
매우높음(99이상)	거의 모든 알레르기 환자에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름
높음(86~98)	대개의 알레르기 환자에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야외활동을 자제함

기온이 점차 높아지며 식중독의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3월부터 11월까지 기온과 습도등을 토대로 총 4단계(위험, 경고, 주의, 관심)의 등급으로 제공한다.

단계	주의사항
위험(85이상)	3~4시간 내 부패가능. 음식물 취급 극히 주의
경고(50~85)	4~6시간 내 부패가능. 조리시설 취급에 주의

자외선 지수

자외선지수라 하면 사람들은 여름철에만 관련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봄철 또한 맑은 날이 많아지며 여름철에 비해 그 강도는 낮으나 자외선에 대한 대비는 오히려 적어 쉽게 피부의 손상을 입게 된다. 따라서 3월부터 11월까지 태양고도가 최대인 남중시각 때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량을 지수식으로 환산하여 제공한다.

단계	주의사항
(위험) 110이상	태양에 노출시 극도로 위험하며, 노출된 피부는 몇 분 내 탈수 있음. 모든 예방조치가 필요함
(매우 높음) 8~10	태양에 노출시 매우 위험하며, 노출된 피부는 빠르게 타서 위험해 질수 있음. 추가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함

*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봄철 생활기상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초질서 위반사범 특별단속 안내

○경찰서에서는 선진기초질서문화 정착을 위하여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선진 기초질서문화 정착으로 수준 높은 관광도시를 만듭시다.

▶ 단속기간 : 2011.4~연중

▶ 단속대상 : 오물투기, 음주소란, 자연훼손, 광고물무단첨부 등

(경범죄처벌법 제1조 20호, 25호, 범칙금 50,000원)

기초질서 실천으로 우리나라 세계최고

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 연중실시

속 초 경 찰 서 장